

한전 연합불자회 내달 발족

14개 지회 700여회원 실행활동 지원

회칙제정·회보발행...기념음악회도 추진

전국 각 사업소에 있는 한국전력 14개 불자회의 연합체인 한국전력연합불자회가 발족한다. 연합회가 구성되면 한전 내 각 사업소의 불자회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불자회 결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연합회는 각 사업소 임원진이 모여 기본적인 회칙을 제정하고 이후 인원의 등을 거쳐 회칙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후원을 받아 연합회보도 4월1일자로 발간하기로 했다. 한전 본사 반야회 이순형 사무국장은 본사 반야회 창립 행사 일정을 보고하고 연합회 창립식을 같이 거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 창립식은 4월8일 한전 본사 반야회 창립 10주년 행사와 함께 봉행되며 부대행사로 '한전인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해 전제 한국전력 임직원들에게 흥겨운 연주를 들려주는 10년 회향의 자리도 마련한다.

한전 반야회를 비롯한 각 사업소 불자회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은

450여명이다. 이 회원들 외에도 한전 내부에서 반야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불자들은 250여명 정도로 700여명의 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전 한국전력 사업소 8개 불자회는 5일 영동 반야회에 모여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연합회 창립건 외에 각 사업소 별 불자회의 활동사례 등을 보고하고 서로의 결속을 다졌다. 한국전력의 각 지역 불자회는 각기 특색을 지니면서 알차게 법회를 꾸려가고 있다.

한전 본사 반야회는 70여명의 회원이 매주 목요일 정기법회를 10년째 꾸준히 꾸려 나가고 있는 등 실행활동에 열심이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수련회, 수계법회, 기초교리강좌, 구도정진법회, 순례법회 등 매달 다른 주제의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월성원지력 반야회·마야부인회, 삼랑진양수 보림회 등은 98년 이미 자체법당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림회

는 16명의 회원이 근교 암자를 찾아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법당 활용 외에도 인근 사찰과 교류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영광원지력 선우회는 불갑사에 불교대학을 설립해 15일 개강하는 등 지역 내 불교화성에도 공헌하고 있다. 선우회 최동룡 회장은 법회 내용이 너무 교리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현실에 걸맞지 않게 딱딱한 것보다는 재미와 자신한테 얻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끌어가고자 수시로 회원들과 토론한다.

인천화력 법우회는 강화 선원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간단한 연계에 활동하고 있고, 한전 경주지점 서광회는 성지순례 위주로 실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창립을 준비 중인 보령지역 불자회에서는 실무자인 이상곤 과장이 수련회에 참석해 준비과정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부산지역 한전사법소에서 2개 정도의 불자회가 더 결성될 전망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이버 선법회는 20~40대 직장인들이 주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 법회 100회 돌파

하북동 '선법회' 극락선원서 기념법회

인터넷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신 공간이지만 불자들에게는 낯설기만 한 사이버 법회를 100회째 꾸려오고 있는 모임이 있다.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 법회를 운영해 온 하이텔 사이버 선법회(선법지킴이 유인자)가 바로 그곳이다. 사이버 선법회는 4~5일 양일간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100회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서울지역은 물론, 강원·충청·경남·경북·부산·호남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의 선법회 회원들이 모여 신심을 다졌다.

4일 저녁 7시 통도사 극락선원에 모인 회원들은 9시부터 법회를 갖고 1시간 동안 좌선으로 마음을 닦았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각 지역 참석자 소개 및 하북동 선법회 연혁 발표를 갖고 새벽예불 전까지 차담을 나누는 등 회원 간의 결속을 공고히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열리는 참선 법회에 가장 많이 동참한 13명을 선정, 시상했다. 대상은 60회를 동참한 이상연씨가 수상했다.

유인자 <2기 명예기자>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신도성 <대전일보 논설위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죄를 참회하고 수계를 받는 마당에 높은 곳이 어디 있고, 낮은 곳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받으려면 당장 물러 가시오!"

1978년 8월15일 한여름, 폭염이 내려쳐는 전방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수계식 도중 터진 호통소리였다. 당시 육군중령이었던 필자는 어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사단 호국독사사에서 수백명의 군장병들이 운경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던 중간에 스님의 사자수가 대중을 내리친 것이다. 그날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 연병장에 무릎꿇고 참회진언을 외우는 병들과 달리, 장교들과 부인들은 본부석 옆 그늘에 서서 수계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큰스님의 호통소리에 놀란 연대장을 비롯한 장교는 물론이고 부인들까지 연병장에 무릎꿇고 "올 살바 못자 모자 사다야 사바하"를 연신 따라했다. 그때의 장면은 우리 졸업생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경사할 아버지가 손자 대하듯 인자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던 스님이기에 그런 호통은 뜻밖이었

다. 필자는 할머니에게 다가갈 "한 장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전단지 받았다. 그리고는 차시간에 쫓겨 대전역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러자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연신 절을 하는게 아닌가. 그 이후 필자는 만나 는 사람들에게 종종 길가다 광고 전단지를 받으라고 권유한다.

올해 초 코카콜라 사회장인 더글러스 대프트의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메시지가 인상 깊게 떠올랐다. "삶이란 공중에서 다섯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입니다. 각각의 공에 일, 가족, 건강, 친구, 나(영



"현재 충실하며 베푸는 삶"

다. 바다와 같은 평등사상이 큰 빙산이 시련한 것처럼 뜰때였다. 군대시절 부처님 가피를 입고 사화에 나온 필자는 백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게을러서 제대로 안될 때가 많다. 그래서 자주 참회한다. 게으름을 참회하고 임의로만 떠든 것을 참회하고,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몰고 지은 죄를 참회한다. 그나마 참회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위주로 처신하여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하루 하루 살기에 급급한 별 수 없는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도 참회한다. IMF의 참담한 시련 속에 동료들이 가슴 아픈 실업자가 되어 퇴직할 때 강 건너 불보듯 한 일도 참회한다.

거창하게 생각하면 남을 돕는 일은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른다. 언젠가 매우 추운 겨울 저녁에 도심 길거리에서 광고전단지 돌리는 한 할머니가 생각한다. 그 할머니는 혹독한 날씨 속에 광고전단지를 수백명의 사람에게 한장씩 정확하게 돌려야 2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서인지 데이트족들 젊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흔)이라고 불어 봅시다. 그중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리면 바로 튀어 오릅니다. 그러나 다른 네개는 유리공이어서 떨어뜨리면 땅과 같이 깨져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종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진 마세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을 의미하는 여행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장 중시하고 현재에 충실하 살 것을 권유하는 그의 메시지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오늘이라는 선물은 화두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중생이기에 베푸는 삶보다 가지지 못해 안달하며 빼앗는 삶이 되지 않았나 참회한다. "동경하지 않으면 말씨에 먼지가 끼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끼고, 엄하지 않으면 울란의 때가 끼듯이, 방일하면 일에 먼지가 낀다"는 성현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는다. 내일이 좋은 날이 되도록 참회하면서 베풀 줄 있는 삶이 되기를 부처님께 서원해본다.

국내 제공 무료 E메일 사이트

- ◇개비메일-http://www.kebi.com/k/mindex/27407W952043952.html
- ◇네띠앙-http://www.netian.com
- ◇대구넷-http://www.taegu.net
- ◇미래메일-http://star.tfc.ac.kr/k/index
- ◇신비로-http://www.shinbiro.com/index.html
- ◇에듀넷-http://www.edunet4u.net/top.html
- ◇윈메일-http://www.winmail.net
- ◇키텔-http://www.kitel.co.kr
- ◇터보메일-http://www.turbomail.net:8081
- ◇하니메일-http://www.naru.co.kr/hanimail/index.html
- ◇시티넷-http://www.citynet.co.kr
- ◇Kmail-http://www.kmail.com
- ◇한미르 메일-http://rmail2.hanmir.com/Y/index.php?x=952046861
- ◇SBS http://ps.sbs.co.kr/sbsmail/index.html
- ◇오르시오 메일-http://www.orgio.net/
- ◇T2N Wide mail-http://www.t2n.net
- ◇프리챌-http://www.freechal.com
- ◇아시안넷-http://www.asiancityweb.com/index-k.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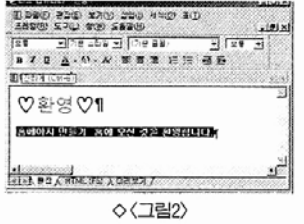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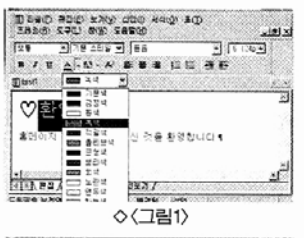
클릭! 새 홈페이지

- 이용호의 즉견여래(卽見如來)(http://www.kebi.com/~vajra)-이용호의 즉견여래, 부처님 말씀,경전 소개 및 해설, 선 어록 등을 볼 수 있다.
- 수도사(http://user.chollian.net/~sudosa)-수도사 홈. 수도사 소개, 주요 행사 일정, 납골당 안내, 행사 및 공지사항, 교통편 안내 등도 볼 수 있다.
- 승운사관후보생(http://www.freechal.com/sangga)-2월22일 개설.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우 중군에서 불교를 대표하여 법회와 설법을 통하여 불법을 전하는 성직자와 국군장교의 길을 가고자 모인 청년 불자들의 단체.
- 정보리 학림(學林)(http://www.freechal.com/haklim)-2월22일 개설. 불국도 건설을 지향하는 불자들의 만남의 장.
- 머시마셋가시나넷(http://cafe.daum.net/m3w3)-2월24일 개설. 경성대학교불교학생회의 어느 한 기수만의 카페이다.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의 모임이다.
- 삼양사청년회(http://cafe.daum.net/samyangsa20)-2월24일 개설. 삼양사 청년회 회원들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 법고불(http://cafe.daum.net/BUBGGBUL)-2월28일 개설. 수원 과학대학 불교 학생회 법고불 출신 회원들의 공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색상 눈에 띄게...글자 맵시있게

홈페이지 만들기 ⑥



글자 크기 조정이 익숙해졌다면 이번엔 글자의 색깔을 바꿔 보자. '환영'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글자색' 아이콘 옆의 색상각형 단추를 누른다. 색상표가 나오면 원하는 색깔을 지정한다.(그림1)

색상표에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면 사용자 정의를 눌러 찾아볼 수 있다. '색상지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색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에 추가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단 글자색이 배경과 달라야 한다. 비슷한 색을 사용하면 좋을 방문해서 글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을 끼치게 된다.

글자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다. 문장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진하게' 아이콘(B)을 누른다.(그림2) 블록으로 선택된 글자가 굵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진하게'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가늘어진다.

가늘어진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이텔리' 아이콘(I)을 누

르면 글자가 가늘어진다.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밑줄이 있는 글자를 만들려면 문장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도구막대의 '밑줄' 아이콘(U)을 누르면 된다. 밑줄이 있는 문장은 하이퍼링크를 설정한 곳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시민선원 개원 안내

천축사 무문관은 근세의 선지식들과 큰스님들께서 수년간 두문불출, 수행정진하여 한국 선 불교에 첫 무문관을 꽃피우고 선을 대중화한 근본도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진하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인 수행 수련원으로 개방합니다. 초발심자 및 참선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불자님들의 동참을바랍니다.

다 음

- 일시 및 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3시 입재 월요일 새벽4시 30분 회향 (3박4일간)
- 제1기 입방일 : 2000년 3월 31일(금요일)
- 입 방 인 원 : 남녀 20-25명선(전화상담과 면담후 입방여부 결정)
- 입 방 규 제 : 술, 담배금지, 묵언(정규 불이행시 퇴방)
- 준 비 물 : 입방원서, 정규이행서(천축사 종무소에서 배부) 입회비(5만원), 세면도구, 법복(권장)
- 접 수 및 문의 : 천축사 종무소 ☎ 02-954-1474, 02-955-7234 / FAX: 02-955-7179 (팩스이용 전화 상담접수 가능)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 057-01-0591-272 천축사)

철야기도 봉행

천축사에서는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내용 : 관음기도, 신중기도, 금강경독송, 야참파담회 108참회, 좌선(기도비 없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랄한(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성분의 성분이 신랄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넛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랄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대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페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 매달되는 중상에 (○) 미심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물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위육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땀띠가 걸고 딱딱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진부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감당선으로 고생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